

AIC 제3차 총회 및 제5차 WG회의

표준화국 이 한 수

지난 6. 4(월)일부터 1990. 6. 12(화)일까지 태국 방콕의 Narai Hotel 회의실에서 제3차 AIC 총회 및 제5차 WG회의가 개최되었다. 우리나라 ISDN 기술발전과 외국의 새로운 기술동향을 파악하고, 국내 회원사간 협조체제 구축과 개발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단이 구성되어 참가하였다. 당협 회의에서는 WG회의에만 참석하였다.

AIC 회의 목적 및 회원내역

회원국간의 전기통신망 현대화 및 고도화 촉진을 위한 상호협력과 아시아 문화권에 맞는 ISDN 기술의 국제 표준화 추진과 전기통신 기술관련 정보 및 인적자원의 상호 교류를 목적으로 극동아시아 국가 및 ASEAN 회원국가로 회원이 구성되었다.

회원국으로는 한국, 일본,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등 7개국이며, 회원기관은 정부, 전기통신사업체, 생산업체, 연구기관, 대학, 개인등이고 한국회원은 체신부, KTA, ETRI, 한국통신기술협회등 13개 기관으로 구성되어있다.

참석현황

회의의 참석자는 총 134명으로 태국, 일본이 가장 많이 참석하였고 이 중 한국참석자는 29명(12개 기관)이었다. 프랑스에서 읍저버로 1명이 참석하였던 이번회의는 제4차 인도네시아 회의때보다 많은 수가 참석하였다.

WG 회의 내용

- Opening Ceremony
 - 태국 우편통신국장의 교통체신차관 초대와 회합 준비사항 설명
 - 태국 교통체신차관의 개회 인사
 - 서정욱 KTA 제2부사장의 개회 인사
 - AIC 사무국장의 AIC 활동과 WG I, II 의장 소개
- Meeting of Working Group I
 - ISDN의 기술적인 사항을 토의하여 구체적인 현장감각이 있는 GUIDE BOOK 등을 발간하기 위한 토의 및 발표
 - Discussion: Document 25편
 - Paper Presentation: Paper 6편
- Meeting of the Sub Working Group
- Meeting of Working Group II
 - ISDN의 Service, 요금 정책, 경제적 파급효과등의 토의 및 발표
 - Discussion : Document 9편
 - Paper Presentation : Paper 15편

중요 사항

일본 우정성에서 “일본에서의 ISDN 터미널 호환성 확보를 위한 정책”이란 제목으로 발표한 내용이 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를 실시하고 있는 당협회에 필요한 좋은 제도인것 같아 소개한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ISDN 터미널의 호환성 확보를 위한 interconnection testing 을 실시하는 것이 요구되어 진다.

일본에 있어서 ISDN 터미널의 호환성 확보가 우정성내에 있는 HATS Conference(Harmonization of Advanced Telecommunication System)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다.

ISDN 터미널은 국제권고에 근거하여 작성된 표준에 따르지만 몇몇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각 국가나 제조자의 결정에 맡겨진다.

결과적으로 비록 이제품이 국제 혹은 국내적으로 합의된 표준에 따라 생산이 되었다 하여도 다른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끼리의 호환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표준화가 정착될때까지 서로 다른회사의 제품에 대한 interconnecting test 를 실시 한다.

업무 흐름을 대략 살펴보면, 먼저 TTC 에 의해서 일본 국내 표준이 제정되고 이것에 의하여 HATS conference 에서는 시험 할 항목을 결정하고, Test Implementation Liaison Committee 에서는 제조업체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시험을 실시하여 그결과를 HATS Conference 에 보고 한다. 이 결과는 다시 TTC 에 통보되어 TTC 표준의 개정판으로 출판된다.

ISDN 터미널의 경우 국제 표준상에 OPTION 사항이 많아 호환성 확보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HATS Conference 는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다. 이같은 제도를 우리나라도 적용하는 것이 좋을것이며 그 기관은 TTA 가 되는것이 바람직하겠다.

회의 참가 소감

과거의 AIC 회의는 일본이 주도하고 있어, 이번 태국 AIC 회의에서는 한국이 주도하기 위하여 많은 발표 논문/기고문을 제출 하였으나 이번 회의에서도 역시 일본에서 제시한 발표 논문/기고문이 많았으며 주도권은 아직도 일본인 것으로 보였으며, 이번 태국 AIC 에서 한국측은 TDX 교환기를 이용한 ISDN 구현을 발표하면서 TDX 교환기를 동남아 국가에 소개하였으며, 일본측은 파급효과 때문인지 견제하기위한 질문 공세가 많았으며, 일본을 제외한 국가에서는 TDX교환기의 제원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위한 질문이 있었다.

일본에서는 회의전에 발표 논문/기고문을 사전검토 한것 같았다. 차후 우리나라도 발표 논문/기고문을 회의전에 미리 입수하여 회의때 궁금한 사항등을 집중적으로 질문한다면 많은 ISDN 기술습득과 더불어 더많은 발표 논문/기고문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AIC 회의를 우리나라가 주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